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한궁대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종합스포츠센터 내 실내게이트볼 구장에서 2024년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14팀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으며, 한궁은 전통 놀이인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극, 서양의 양궁과 다티의 장점을 살린 생활체육 종목으로, 양손 운동을 통해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균형을 길러주는 실내운동으로 어르신들의 오십견에 아주 타월한 스포츠이다.

아침 체육지도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펼치며 2시간 동안 열띤 경기를 펼쳤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단체 3팀, 개인 4명이 수상의 광경을 차지했다.

곽철곤 지회장은 “올해도 한궁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주신 남원시와 각종 후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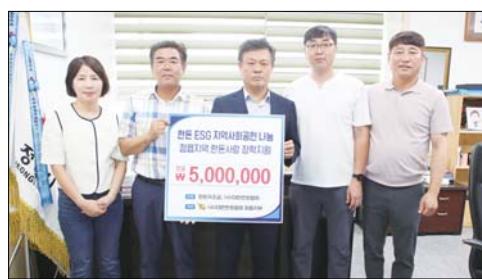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제2차 이사회 개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지난 19일 지회 회의실에서 무주군지회 이사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이사회에는 국민의례, 김민중 부회장 노인경령 담당, 이광부지회장 인사, 섬원보고, 전회회의록 인준, 2024년 주요사업 성과 및 하반기 주간계획보고와 기타사항으로 24일 개최되는 제8회 무주군지회장기 제이트볼대회 참석 협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광부 지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계속되는 장마에 건강 관리 잘해달라고 말하면서, 지회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시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안용희)는 지난 18일 지역 육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안용희 지부장은 “지역사회에의 발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이사장은 “여러분 예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축산농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의 장학금 기탁은 이번이 세 번째며, 저소득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돼지고기를 기탁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청 화신향우회, 고향 위해 수해 성금기탁

완주군청 화신향우회(회장 송원근)가 고향 화신면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화신향우회는 화신면 출신의 군청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화신면에서는 이번 성금을 수해를 입은 화신면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원근 회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서 전북 꿈나무 체육대회 열려

양육시설 초·중학생 대상… 배드민턴 등 전북 대표선수 선발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 꿈나무 체육대회가 완주군의 후원을 받아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및 완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19일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이동복지협회(회장 양향환)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시설 아동 및 종사자 150명이 참여했다. 도내 16개 아동양육시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축구(남) △스프레드민턴(여) △탁구(여) △체주(여) 경기가 진행됐으며 입장자들은 오는 9월 목포에서 열리는 제24회 보건복지부장관杯 꿈나무 체육대회에 전북 대표선수로 참가하게 된다.

완주군과 완주지역자활센터는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학도그와 이온음료, 음료와 쿠키를 제공하며 이동들을

응원했다. 전북마을모아봉사단(김희진 단장)은 빙수와 간식을 슈퍼빌라(이용호 부사장)와 (유)유영타일상사(정일권 대표)는 배드민턴 의류와 용품, 축구 유니폼을 후원했다.

임영환 전북이동복지협회장은 “체육대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전북도와 완주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 아동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에서 제20회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설아동이 체력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보호와 지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종훈 경제부지사, 직원들과 수해 복구에 구슬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축산산업국 직원 60여명과 익산시 망성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복구 진척상황 등을 공유하며 수해로 인한 고충을 위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농생명축산산업국 직원 60여 명은 지난 17일~18일 이틀간 익산 망성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를 찾아 복구를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40여 동의 침수된 수박과 멜론 작물을 걷어내고 비닐과 자재 등을 정리하며 일손이 부족해 막막한 피해주민의 시름을 달랬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피해 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피해현장에 나왔다.”라며,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LX글라스 한마음봉사회,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군산시는 LX글라스 군산공장 한마음봉사회(회장 백두산)가 지난 18일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스클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증하며 3년 내 1,000만원 이상 기부를 해야 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가입한 한마음봉사회는 50여명 봉사회원들의 자발적 모금 마련으로 매월 50만원씩 기부하여 3년 내 1,0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속했다.

향후 기부금은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전한 자립 지원을 위한 든든한 후원 비용으로 3년 동안 정기 기부가 될 예정이다.

LX글라스 한마음봉사회 백두산 회장은 “앞으로도 봉사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전하는데 뜻을 모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X글라스는 시립·공간·환경을 새로운 미래로 연결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편유리·반사유리·복층유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LX글라스 군산공장 한마음봉사회는 이전에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후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해오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엄마와 아기 함께 교감… 김제시, 족감놀이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아이와 엄마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제지역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건강을 위해 아이와 엄마가 교감을 통할 수 있는 족감놀이를 가졌다.

사업대상은 김제 거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대상 엄마와 아기 12팀으로 미역, 국수, 마카로니, 쌀과자, 밀가루, 물감 등을 활용해 족감놀이를 진행하며 서로 교감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보건소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해 엄마와 아기 모두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유영아 가정에 건강상담, 아이발달, 양육교육 등 토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엄마 모임을 통해 엄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엄마·아기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완주군에 10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위해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무주군산림조합,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무주군산림조합이 지난 19일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산림조합이 기탁한 장학금은 무주군 지역 내 학생들의 초·중·고·대학교 진학 및 재학 시, 또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상 경력을 쓸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소식을 듣고, 노사가 뜻을 모아 물품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임민규 공장장과 김정철 노조 전주 위원회 의장은 ‘비 피해 소식에 입직원 모두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수해를 입은 우리 지역 완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임실 강진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량 교육

임실군 강진면이 19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화상)사고 및 성희롱 등 사례를 통한 동영상 시청으로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정화 중 도로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방지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여름철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황선희 강진면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고,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기센터, 기후변화대응 현장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발굴 및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거제시 신청군 일원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생활개선) 회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기후변화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신소득 작목발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 작목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되었다.

센터 농촌지홍과 최정인 과장은 “이번 현장 교육이 농업인학습단체(생활개선) 회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원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